

광주·전남 '안전 사각지대' 여전... 소방관서 확충 시급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적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소방의 날이 9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은 재난으로부터 제때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소방력이 이른바 '골든타임'인 7분 내에 화재 현장

에 도착한 비율은 ▲2017년 78.6% ▲2018년 80.3% ▲2019년 80.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 출동의 경우 2017년 59%, 2018년 54.5%, 지난해 56.8%에 그쳤다. 구급 분야 역시 2017·2018년 2년 연속 81.1%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8.1%로 골든타임 내 출동 비율이 감소했다.

매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달라지지만, 소방당국의 도움을 제때 받는 비율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시민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 원인으로는 소방서·119안전센터 등 출동 거점 인

최근 3년간 골든타임 7분내 현장 도착 비율 상승세 '주춤'
소방관 1명당 인구, 광주 951명·전남 475명...편차 3.6배 ↑
관서 신설 중이지만 '공백 불가피'... "지자체 적극 협조를"

프라 부족이 꼽히고 있다. 광주 5개 소방서 중 관할지 내 최장 출동 거리를 기록한 관서는 광산소방서(약 20.9km)였다.

119안전센터 등을 기준으로 하면 출동 거리는 보다 짧아질 수 있으나, 모든 관내 소방력이 투입되는 '대응 1단계' 이상의 대형 재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광산소방서는 관할 면적도 222.78km로 가장 넓다. 광주 전체 면적(501.18km)의 44.4%를 광산소방서와 산하 7개 119안전센터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광주에 배치돼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1529명이다. 올해 인구 145만3952명을 기준으로 하면 소방관 1명이 시민 951명의 안전을 책임

임지고 있는 셈이다. 첨단 2지구 입주 인구가 급증한 북구 건국·신용동 일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는 내년 5월 완공된다. 남구 대촌119안전센터와 광산구 빛그린119안전센터는 아직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말께나 문을 연다.

주민등록 인구가 8만 명을 넘어 분동(分洞) 논의까지 나온 수완지구에는 이르면 2022년이나 119안전센터가 들어선다.

산간·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 3년간 전남에서 신고 접수 이후 7분 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2017년 53.2%, 2018년 52.9%, 지난해 57.1% 등으로 집계됐다. 화재 현장 중 절반 가량은 초기 진화의 적기를 놓쳐 피해가 커지는 셈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완도·신안·진도·구례·곡성에는 소방서가 없다. 실질적인 소방서비스는 읍·면 단위 119안전센터와 지역대가 책

임지고 있다. 17개 소방서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해남소방서다. 해남·완도·진도 등 3개 군을 담당하는 해남소방서의 관할지역은 1868km에 이른다. 전남도 전체 면적 1만2345.21km의 15.1%를 차지한다.

전남도 인구 190만3383명 중 소방공무원은 4006명으로, 소방관 1명당 도민 475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시·군별 소방공무원 1명당 담당 인구는 ▲목포(신안 포함) 852명 ▲순천(구례 포함) 834명 ▲여수 775명 ▲광양 755명 ▲강진 567명 ▲해남 527명(진도 포함) ▲나주 49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안 398명 ▲영광 375명 ▲영암 374명 ▲장성 269명 ▲완도 360명 ▲화순 352명 ▲담양(곡성 포함) 351명 ▲고흥 311명 ▲보성 250명 ▲장흥 243명 ▲함평 233명 순으로, 지역별 편차가 최대 3.6배 남짓 벌어졌다.

전남소방본부는 올해 안에 완도소방서 신설을 마무리하고, 진도 임회면·담양 고서면에 119 안전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신안·진도에, 오는 2022년에는 구례·곡성에 소방 본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미희기자



여수·순천 '코로나19' 지역감염에 '초긴장'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7일과 8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전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8일 여수와 순천시에 따르면 이틀간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자 1명(전남 191번·여수 13번)과 광주 517번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전남 192번~193번·여수 14번~15번) 및 직장 동료(전남 194번·여수 16번), 또 다른 직장동료(전남 195번) 등 4명이 확진됐다.

여수시는 올해 2월 대구를 다녀온 20대가 확진된 후 지역감염자 발생이 없었으나, 8일 오전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여수 14번~16번 확진자가 가족 및 직장동료이고 이들의 가족 및 동산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앞서 서울 방문판매 회사에서 비룻돼 헬스클럽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한바 있는 순천시는 여수에서 출퇴근하던 은행직원이 확진되면서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감염이 계속되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은행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선행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만큼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해 은행과 커피숍, 식당 등 방역과 접촉자 동선추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영암 삼호농협, 농협중앙회 선정 '윤리경영대상'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제4회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에 전남 영암의

삼호농협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2017년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을 제정해 매년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윤리경영활동, 사고예방, 사회공헌 활동기준의 상위 20% 농·축협 중 3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농·축협 윤리경영대상에는 삼호농협(대상), 오정농협(최우수상), 우수상에는 구미농협·남부안농협·서부농협·평창영월정선축협 등 6개 농·축협이 선정됐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농협이 투명한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농협이 되어야 한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농협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삼호농협 황성오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표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産 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